

남자 양궁 컴파운드 男 단체전 첫 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인도와 결승전서 슛오프 접전 끝에... 한국, 남녀 단체전 등 3개 종목 중 2개 수확

한국 양궁 컴파운드 남자 대표팀이 여자에 이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최용희(34) 김중호(24) 홍성호(21·현대제철)로 구성된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인도와의 결승전에서 슛오프 접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치러진 양궁 컴파운드 남녀 단체전과 혼성 등 3개 종목 중 2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컴파운드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처음 도입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인도에 패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설욕하며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1엔드는 인도가 앞섰다. 인도는 연이어 10점을 쏘며 60-56으로 앞섰다. 2엔드에서 인도가 흔들리면서 114-114 동점을 이뤘다.

3엔드에서는 172-170으로 인도가 다시 앞섰다.

마지막 4세트에서 경계에 쫓힌 홍성호의 2발이 10점으로 인정되면서 229-229 동점이 됐다. 슛오프에서는 최용희가 10점, 홍성호가 9점, 김중호가 10점을 쏘아 인도와 동점을 이뤘지만 우리가 10점에 더 가까워 금메달을 따냈다.

/뉴시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컴파운드 단체전 결승 경기가 열린 28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양궁경기장에서 인도와 연장전 접전 끝에 금메달을 차지한 대한민국(최용희, 홍성호, 김중호) 대표팀이 기뻐하고 있다.



김우진, 남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

김우진(26·광주시청)이 후배 이우석(21·상무)을 제치고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봉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이우석을 세트스코어 6-4(27-27 26-28 27-26 29-29 27-26)로 제압했다.

김우진은 2010년 광주우대회 이후 이 종목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뉴시스

남자 사이클 단체추발 아쉽게 탈락

낙차 사고로 결승 오르지 못해

남자 사이클 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추발 1라운드 경기에서 낙차 사고로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1라운드에서 중국과 맞붙은 대표팀은 임재연(27·한국철도공사)의 낙차 사고 탓에 완주하지 못했다.

김육철(24), 민경호(22·이상 서울시청), 신동인(24·국군체육부대), 임재연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은 전날 벌어진 예상에서 4km를 3분56초247에 주파,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2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이 작성한 3분57초801을 1초 이상 앞당기며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했던 남자 대표팀은 1라운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2006년 도하 대회와 2010년 광주우 대회에서 남자 단체추발 2연패에 성공했던 한국 사이클은 2014년 인천 대회에서는 중국에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땀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뉴시스



김학범호 한국 축구, 단체 생일파티... 금 의지 다짐

아시안게임 2연패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생일을 맞은 선수들을 위해 케이크와 미역국을 준비해 금메달 의지를 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대회 기간에 생일을 맞은 선수들이 있어 경기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 26일 숙소에서 단체로 생일 파티를 열었다. 코칭스태프가 금메달을 기원하는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25일 장운호(전북)를 시작으로 26일 이진현(포항), 28일 황의조(갑파 오사기), 29일 김건웅(울산)이 생일을 맞았거나 맞는다.

선수단에 동행한 조리사는 생일을 맞은 선수들을 위해 이날 점심 메뉴로 미역국을 준비했다.

베트남과의 준결승을 앞둔 태극전사들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4시부터 경기가 열리는 파간사리 스타디움에서 한 시간 동안 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한국과 베트남의 준결승은 30일 열린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한국 야구, 홍콩 꺾고 조 2위로 슈퍼라운드 진출

21-3 승리... 내일 일본과 첫 경기

한국 야구대표팀이 약체 홍콩을 꺾고 아시안게임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선봉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대표팀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홍콩과의 B조 예선 세 번째 경기에서 21-3으로 승리했다.

지난 26일 대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던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연파하고 2승 1패를 기록해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다. 한국은 오는 30일 A조 예선 1위 일본과 같은 장소에서 슈퍼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이 프로 선수가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홍콩을 월드컵게임으로 이기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타자들은 고교생 수준의 홍콩 투수들을 상대로 집중타를 때려내지 못했다. 엄청난 스윙으로 일관하기 일쑤였다. 9회초 수진이 한참 낮은 투수들이 나오자, 뒤늦게 10점을 뽑아냈다.

톱타자 이정후는 투런 홈런과 솔로포를 포함해 7타수 4안타 4타점 3득점으로 활약했고, 황재균은 ছ끼 만루 홈런을 포함해 6타수 4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전날 대만에 1-16 월드컵게임으로 패했던 홍콩은 한국을 상대로 선전을 펼쳤다. 안타도 8개나 때려냈다.

한국 선발 임찬규는 4이닝 4피안타(1피홈런) 8탈삼진 2실점, 장필준은 1이닝 2피안타 1실점으로 체면을 구겼다.

한국은 1회초 선취점을 올렸다. 2사 후 안치홍과 박병호의 연속 볼넷에 이어 김재환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1점을 올렸다.

그러나 한국은 2회말 선발 임찬규가 안



28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봉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B조 한국과 홍콩의 경기. 한국 6회초 무사 1루 상황 이정후가 우월 투런포를 날린 뒤 베이스를 들고 있다.

타 2개를 내주면서 1-1 동점을 허용했다.

3회 김재환의 희생플라이로 다시 리드를 잡은 한국은 4회 1사 1루에서 이정후의 1타점 2루타, 안치홍의 희생플라이, 박병호의 적시타로 나오면서 5-1로 달아났다.

그러나 임찬규는 4회 홍콩의 4번타자 매

트 홀리데이에게 솔로 홈런을 맞고 추격을 허용했다.

6회 이정후의 투런 홈런 등으로 3점을 추가한 한국은 8-3으로 앞선 8회 3점을 추가했다. 한국은 9회 황재균의 만루 홈런을 필두로 홈런 4방을 집중하며 10점을 뽑아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뉴시스

여자 탁구 단체전, 중국에

0-3으로 완패... 결승진출 실패

민리장성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한국 여자 탁구가 중국에 막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여자 탁구 대표팀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탁구 여자 단체 4강전에서 중국에 게임스코어 0-3으로 완패했다.

전날 난적 싱가포르를 누르고 준결승에 안착한 여자 대표팀은 한 게임도 패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3~4위전을 따로 치르지 않는 규정에 따라 2010년 광주우 대회(동메달) 이후 8년 만의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중국은 4강까지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다.

여자 대표팀은 전지희(26·포스코에너지)·최효주(20·삼성생명)·서효원(31·한국마사회)순으로 중국을 상대했다. 전날 좋은 활약을 보인 양하은(24·대한항공)은 컨디션 난조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전지희는 세계랭킹 1위 주율링에게 세트스코어 1-3(7-11 5-11 11-7 5-11)으로 졌다. 3세트를 때내며 선전했으나 실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최효주는 세계랭킹 3위 천명을 만났다. 천명은 최효주를 세트스코어 3-0(11-8 11-6 11-8)으로 완파했다. 최효주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지키지 못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3단식은 서효원과 중국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왕민유의 대결이었다. 서효원은 끈질긴 수비로 왕민유의 공격을 버텼다. 하지만 세트스코어 1-1에서 3세트를 빼앗기면서 동력을 잃었다.

메달권 진입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한 여자 대표팀은 28일부터 시작될 개인전에서 메달 획득을 노린다. /뉴시스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남원서 오픈

내달 5일부터 10일간... 역대 최대 규모로

남원시가 춘향골 체육공원 일원에 건설한 롤러스케이팅장에서는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간 '제18회 아시아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남원시가 그동안 치러온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와 함께 남원을 롤러스케이팅의 성지로 자리 매김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모터스포츠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바퀴들의 전쟁이자 인류사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바퀴를 신고 달리는 가장 현대적인 스포츠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난 2016년 중국 리슈이에서 제17회 아시아 롤러 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막을 내린 이후 차기 개최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되면서 개최 도시에 대한 관심이 국내 외에서 높아진 상황에서 지리적 여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남원이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가지 요인이 있었으며, 3요인은 우선 지난 10여 년간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노하우와 롤러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이 두 가지를 밑받침한 남원시의 행정적 지원이다.

제18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으로, 참가국만 17개국에 1,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남원=김기두 기자